

# 교통약자 제대로 챙기는 영광군...보편적 복지란 이런 것



영광군 농어촌버스 탑승 관리원이 어르신들의 배낭을 들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1일부터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1000원 여객선' 운항을 시행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4월 농어촌버스 탑승관리원 제도를 도입해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돕고 있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의 버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영광버스터미널은 파란 조끼를 입은 2명의 30대 청년에 의해 지휘되고 있다.

'영광군 탑승관리원'이 새겨진 조끼에 작업장갑을 착용한 이들은 버스가 승강장에 도착할 때마다 버스 행선지를 외치며 어르신들의 승차를 돕고 있다.

터미널 안 대합실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어르신들이 일제히 몰려들며 혼잡해질 듯하다가도 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질서 정연한 줄서기를 만들어 내는 모습이 경이롭다.

이들은 영광군이 올해 신규 시책으로 교통약자들의 교통환경 개선에 목적을 추진하고 있는 '영광군 농어촌버스 탑승관리원 운영 사업'에 따라 채용된 청년이다. 2명의 탑승관리원은 버스 이용객이 많은 장날을 비롯해 평일과 주말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시 근무한다.

이들은 어르신·장애인 등 버스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버스를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버스노선을 안내해주며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동무 역할까지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버스 시간에 따라 새롭게 밀려드는 어르신들로 다시 대합실은 가득 찼고, 탑승관리원과 어르신들은 서로 행선지를 묻고 답변하는 사이에서 미소가 오갔다. 과거 불안한 눈빛으로 대합실 밖을 바라보거나 끼질 듯 땅을 향했던 시선도 탑승관리원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며 이전보다 여유롭게 터미널을 이용하는 모습이였다.

탑승관리원 박모 씨는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다. 터미널이 신축 이전하며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끔 귀가 어두운 고령의 어르신을 도울 때는 큰소리로 불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르신들의 안전이 우선인 만큼 큰소리가 필요할 때는 내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소 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이용객들은 "탑승관리원들이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큰 소리로 알려줘 잘 안 들리고 글 못 읽는 사람들도 편하게 버스를 탈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영광군은 또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해광운수와 1000원 여객선 운항 협약

## 농어촌버스 탑승 도우미 운영 노인·장애인 안전하게 승·하차

### 섬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

### 1000원 여객선 운항 시작

### 100원 택시·장애인 콜택시 등 군민 행복 위해 구석구석 복지

(MOU)을 체결하고 지난 1일부터 '1000원 여객선' 운항을 시작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섬주민들은 나월도 3300원, 송이도 4800원, 안마도 5000원씩 부담했던 여객 운임을 운항거리에 상관없이 여객선사에 1000원만 내면 된다.

영광군은 그동안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던 100원 택시와 같이 섬주민 교통약자에게도 보편적 해상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국·도비 증액 요청,

1000원 여객선 운영 조례 제정 등을 적극 추진했다.

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영광 섬지역 주민은 나월도와 송이·안마도 주민 408가구 590명 정도로 조사됐으며 1000원에 섬과 육지를 오가는 이 여객선은 만만치 않은 해상교통비를 부담하던 섬 주민들에게 단비가 되고 있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주민 김모 씨는 "섬 주민으로서 자유롭게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여객선 이용료가 부담이었다"며 "이번에 1000원에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더욱 애용할 것 같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영광군은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군민의 교통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를 시책으로 추진했다. 기존에 일반 1300원, 중·고교생 1000원, 초등학생 650원이었던 버스요금을 일반 1000원, 초·중·고 학생 500원으로 단일화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차별화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민 행복 100원 택시'와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매년 차량 구입을 지원·운영하는 등 확대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버스이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버스를 쉽게 찾아 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도입한 탑승관리원 제도와 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1000원 여객선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군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보편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운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과 (주)해광운수는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항 협약을 체결했다.



영광군 농어촌버스 탑승 관리원이 버스에서 짐을 내려주고 있다.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차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